

기타 여러 제어 분야와 증폭기, 필터 등의 통신 시스템, 법규 및 표준 규격등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었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모든 연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연구 경향이 디지털 기술에 관한 것으로 점차 확

대되어 미래 정보화 사회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성 통신 분야와 컴퓨터 통신, 광통신, 영상처리 기술 등이 80 [%] 이상으로써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이에 힘입어 컴퓨터와 통신이 일체화된 종합 정보 통신망의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

PCCS '85참관기

全 吉 男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국제 학술회의는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빠른 시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는 장이 됨으로써, 연구를 하는 개개인들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 1회 태평양 컴퓨터 통신 국제 학술회의(Pacific Computer Communication Symposium; pccs'85)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pccs'85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컴퓨터 분야와 통신 분야의 접목을 꾀하는 하나의 장이었으며, 또한 컴퓨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였다.

pccs'85는 1985년 10월 21일부터 5일간, 국외에서 약 120명, 국내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쉐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처음과 마지막날 이틀간은 네개의 tutorial을 통해 컴퓨터 통신 분산 시스템, 컴퓨터 구조 분야의 전문가의 강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3일간은 32개의 session을 통해 9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중 반 정도가 미국에서 제출되었고, 그 외 절반은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유럽·남미의 16개국에서 제출되었다.

이 외에도 다른 학술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학회에서도,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의 비공식적인 만남과 토론, 논문 발표이후의 모임, 그리고 주제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Panel Discussion이 논문 발표 못지 않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한된 지면과 제한된 시간때문에 다 설명 못한 내용을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꾀할 수 있었고, 또 각 사람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정보 교환의 창구를 폭 넓게 제공하였다. 5개의 BOF (Birds of a feather) Session을 통해 일본의 신세대 컴퓨터 개발에 관한 전망, USENET 등의 네트워크 개발 및 이야기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전 세계의 주요 R&D 네트워크의 책임자들

이 참석한 Joint Network Meeting이 있었다. Joint Network Meeting은 크게 4 session 으로 나뉘어서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주요 네트워크의 책임자들이 각 네트워크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Pannel Discussion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가 모여서 전체 R & D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Global Network의 구성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외에도 연회등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끼리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하여 현재 수행중인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ACM, IEEE와 같은 대규모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컴퓨터 관련 분야의 국제 규모 학술회의가 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도 CalTeh VLSI Conference와 같은 소규모의 것을 합하면 수백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도 수십개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도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학술 회의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첨단 정보의 교환 장소로서 전문화되어 있으며,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학술회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을 거의 볼 수 없다. 미국 다음의 컴퓨터 강대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자생적인 것으로 국제 규모의 것은 FGCS Conference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로 가면 더욱 빈약해진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의 정보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같은 규모의 국제 학술회의를 나름대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로로 하여 전문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정보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전문인들간의 실질적 교류 관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면,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특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지역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가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이 같은 국제 학술회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분야의 기반(infrastructure)을 탄탄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PTC '86 참관기

孫 龍
(중앙대학교 교수, PTC 이사)

Pacific Telecommunications Council (PTC)은 현대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협의회이다.

PTC (태평양전기통신협회)는 태평양지역, 즉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주로

둘러싸인 전지역 전기통신의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국제적·비정치적·비영리 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학자나 과학자,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통신서비스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